

삼성특검 이재용 전무 소환 경영권 불법승계 집중조사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용 특별검사팀은 28일 이재용(40) 삼성전자 전무를 소환, 피의자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다.

이 회장의 장남인 이 전무는 앞서 검찰의 에버랜드 사건 수사 당시 서면조사를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지만 수사당국에 직접 출석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또 특검팀은 이날 그룹 주변부 인물이 아닌 이 전무를 전격 소환함에 따라 담보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검팀은 'e삼성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인 이 전무를 상대로 피의자 신분조사를 작성했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배임 사건 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전반과 관련된 여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인 이 전무는 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 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을 정상보다 싼 가격에 탈법적으로 넘겨받아 그룹 지배권을 승계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자신이 사업을 주도했다가 200억원 이상 적자를 낸 e삼성의 손실을 계열사들에 떠넘긴 의혹이 제기된 'e삼성 사건'의 피고발인이다.

이 전무는 본격 조사에 앞서 30분 가량의 특검과 면담한 뒤 분야별로 수사를 나눠달고 있는 특검보 3명의 방에서 차례로 피고발인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28일 오전 서울 한남동 삼성특검 사무실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BW) 저가발행, 서울통신기술 CB 저가발행, e삼성 지분 매각 등 4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중심으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그룹 차원의 공모·지시가 있었는지, 이 전무가 지배권 불법승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와 계열사 지분 인수자금의 출처·조성 경위 등을 캐물었다.

이 전무는 계열사 지분 인수과정에서 그룹의 조직적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특검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평화의 선율' 박수 뉴욕필 서울공연 마쳐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음악으로 평양과 서울을 하나로 이었다. 북한을 방문해 지난 26일 역사적 평양공연을 가진 뉴욕필이 28일 오후 1시30분 서울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섰다.

북한 공연에서 북한 국가와 미국 국가를 맨 처음 들려준 뉴욕필은 서울공연에서도 남한의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첫 번째 곡으로 연주했다. 뉴욕필은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을 연주한 뒤 2004년 한국과 일본 공연에서 협연한 경험이 있는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들려줬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 차마를 응용한 듯한 과란색 드레스를 입고 나온 손열음은 원숙한 무대를 보여줬다. 마지막 연주곡인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은 서울공연의 하이라이프이자 평양과 서울을 잇는 뉴욕필의 종착곡이라고 할 수 있었다.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봄날 열음이 녹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 곡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의 남북한 관계를 보여주는 듯했다.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의 열광적인 박수가 쏟아지자 지휘자 로린 마젤은 '운명'의 핵심 악기군 가운데 하나인 할 수 있는 금관악기 편성부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다.

한 곡의 앙코르 곡이 끝날 때마다 기립박수를 쏟아내던 관객들에게 뉴욕필은 마지막으로 북한 작곡가 최성현의 '아리랑 환상곡'을 들려줬다.

두 손을 다시 가슴에 모은 로린 마젤의 인사를 끝으로 평양에 이어 서울을 잇는 뉴욕필의 공연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연합뉴스

풍산그룹 초청 내달 11일 방한 부시 前대통령

북핵 특사실... 방북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 예방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은 다음달 중순 방한한다. 외교 소식통은 28일 "부시 전 대통령이 류진 풍산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다음달 11일 방한할 예정"이라며 "그가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13일까지로 예정된 방한 기간 국제교류재단 초청 강연과 풍산그룹 창립기념일 행사, 혼혈 관련 행사 등에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 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외교부에서는 그가 핵프로그램 신평고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의 진전

을 위해 부시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할 것이라는 설(說)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미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뉴욕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으로 북미 간에 화해 분위기가 흐르고 있어 부시 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북한까지 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부시 전 대통령 자신도 특사로서 활동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핵 1차 핵위기가 고조되던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특사로 방북, 김일성 주석과 만나 북한의 핵연료 재처리 중단 등에 합의한 적이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부시 전 대통령이 특사로 방북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한 당국자는 "핵프로그램 신평고 문제가 풀리지 않은 가운데 부시 전 대통령이 방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고 다른 당국자는 "미국이 이 문제로 아직까지 한국과 협의한 적이 없다"면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풍산그룹 류 회장은 부친인 고 류찬우 회장이 방위산업을 통해 구축한 미국 군부 및 공화당 인사들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 가문과의 교분이 깊다. 2005년 11월에도 부시 전 대통령 내외를 초청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축출된 탁신 치나왓 전 태국 총리가 28일 방콕에서 대법원을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17개월간의 해외 망명에서 이날 귀국한 탁신은 부패혐의로 오는 3월 재판 받을 때까지 보석을 허용받았다고 한 법원판사가 말했다. /연합뉴스

美 대선 지지율 공화당 매케인 오바마에 앞서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최근 실시된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을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LAT와 블룸버그통신이 전국 유권자 1천 2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케인 의원은 오바마 의원의 맞대결 선호도 조사에서 44%의 지지율을 획득, 42%에 그친 오바마 의원을 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매케인 의원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가장대결에서도 6%포인트 차로(46% 대 40%)로 앞섰다.

매케인 의원은 본인 스스로 '경제 문제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농담삼아 말하고 있는데도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오바마 의원(34%)보다 매케인 의원(42%)이 경제를 더 잘 다룰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에 매케인과 힐러리 의원간 경제문제 맞대결에서는 힐러리 의원을 선택한 유권자들이 9%포인트(43% 대 34%) 더 많았다.

특히, 이번 조사에 참여한 유권자 대다수는 이라크 전쟁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는데 이라크 사태를 풀어야 할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부시 행정부의 군사전략을 지지하는 매케인 의원을 뽑았다.

LAT는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들이 매케인 후보의 경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5일 전국 유권자 1천24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3%이다. /연합뉴스

청와대 "BBK 관련 야당 인사 訴취하 못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28일 대선기간 'BBK 추가조사' 의혹 제기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야당 인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통합민주당 일각에서 대화합 차원에서 선거 때 일어났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특 털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던 대선기간 특검조사를 받은 야당에 그것은 좀 곤란하다"면서 "아직까지 야당으로부터 공식 제안은 없었으나 설명 있다고 해도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치보복 차원이 아니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라도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에도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면 선거 때마다 네거티브

와 흑색선전이 되풀이 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검찰에 개입할 계재도 못되고 일단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도 "우리나라 선거중도의 고질적 병폐 2가지가 금권선거와 유언비어 선거인데 금권선거 문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고, 나머지 유언비어와 흑색선전 풍토도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으로부터 고소·고발된 통합민주당 인사는 지난 22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봉주 의원을 비롯해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 김중률, 박영선 의원 등이다. /연합뉴스

탁신 前 태국총리 17개월만에 귀국

태국 군부 쿠데타로 모든 권좌에서 축출됐던 탁신 치나왓(58) 전 총리가 작년 '12·23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귀신 몸'이 되어 해외망명 17개월만인 28일 귀국했다.

탁신은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기업가 출신으로 뛰어난 사업수완을 현실 정치에 접목시켜 태국 정치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독선적인 통치 스타일로 인해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비난도 동시에 받고 있다.

1998년 '타이 락 타이'(TRT) 정당을 세워 2001년 총리직에 오른 그는 의료비 감면과 부채 탕감 정책 등을 펼쳐 농촌지역과 빈민층을 사로잡았다.

탁신은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2005년 2월 총선에서 하원 의석 50석 가운데 37석을 휩쓸어 압승을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했으나 대중과 영합하는 인기 정책으로 '포퓰리스트'라는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2006년 1월 그의 일가가 회사 주식을 싱가포르 국영기업에 19억달러에 팔아 엄청난 이익을 챙기기도 세금을 환포도 내지 않아 국민의 분노를 샀으며 사임 위기에 내몰렸다. 이에 맞서 탁신은 조기총선 카드를 빼들었지만 이미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피플파워'에 굴복, 그해 4월 사임을 발표했다.

탁신은 사임 발표 후 한 달 반만에 총리직에 복귀했으나 그해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하던 중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권좌에서 축출됐으며 그는 귀국을 포기하고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해외 망명생활을 해왔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작년 5월 선거부정으로 이유로 탁신이 창당한 TRT의 정당해체와 함께 그를 포함한 111명의 당간부에 대해 향후 5년간 정치활동 금지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탁신 계열의 인사들이 창당한 신당 '국민의 힘'(PPP)은 작년 12월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 의회와 정부 내 요직을 장악하면서 그가 귀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난방기와 에어컨을 1대로..

난방비 1/3로 줄었다!

난방비 줄이기, 에어컨 절약하기,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 공기탈취기, 공기정화기

TEMPIA 전화 252-2900 080-252-7117

신속확장개업 일식요리의 명가 청하

오류는 생산폐수인 고수익에 투자되나, 청하의 미래는 청하의 일식 요리입니다. 신속확장개업의 명가 청하입니다. 새로운 경영자로 청하의 명가, 청하의 명가입니다.

대·소연회 / 상견례 / 각종 모임 및 집대 단체환영 / 주차장원비

청하 223-7037 / 224-5002